

#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김수환 추기경

**호**스피스란 말기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시설, 지금 우리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가르키는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환자들을 형제적 사랑으로 돕고 있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호스피스에 직접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호스피스라는 것이 낯이 죽어가는 환자와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이에게는 말할 수 없이 의미있고 소중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존엄한 존재입니다. 생명도 신비요, 죽음도 신비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합니다. 인간답게 살고 인간답게 죽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비록 사는 것은 형편상 인간답게 살지 못했더라도 죽는 것만은 인간답게 죽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인간답게 죽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호스피스의 사명일 것입니다. 죽음과 여기 따르는 고통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평안히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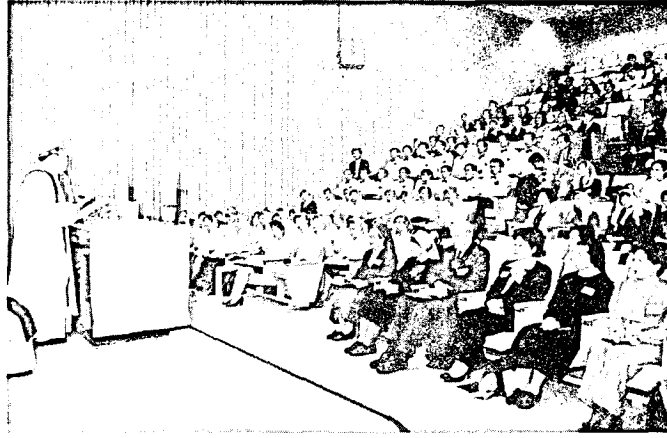
호스피스란 환자가 이렇게 죽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랑의 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시간 저에게 떠오르는 것은 마더 테레사에 관한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한 힌두 신사가 마더 테레사의 사랑의 선교회 수녀님들의 'Home for dying', 죽어가는 이들을 길거리에서 데려다 돌보는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수녀님들이 죽어가는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한 시간 넘게 지켜보다가 그 집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마더 테레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신사는 수녀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수녀님, 제가 이 집에 들어 올 때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갑니다. 이유는 여기와서 임종하는 한 보잘것없는 노인의 손목을 잡고 자애로이 지켜보고 있는 한 수녀님의 모습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더 테레사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옆에 앉아 그의 손목을 사랑으로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도 그렇거니와, 그런 사랑의 봉사가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감동케 해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죽어가는 사람, 죽음의 고통 와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 비록 단순한 내용이긴 하



지만 호스피스에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호스피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종하는 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으로까지 표현할 수는 없다 하여도 그를 참으로 동정하는 마음, Compassion, 그와 고통을 나누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은 분명히 그 시간 임종자 옆에서 한없는 연민의 마음, Compassion으로 그와 임종의 고통을 나누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자애 깊으신 분,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셨고, 스스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써 인간의 고통과 고통, 죽음과 절망의 밑바닥에 까지 내려가셔서 몸소 겪으신 분이십니다.

Moltmann이라는 신학자는 주님이 이 인간 고통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주님의 연민의 정 Compassion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박해 당하시고 고독하신 그리스도, 하-

님의 침묵 속에 고통받으시는 그리스도,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그토록 철저히 버림받으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믿고 의탁할 수 있는 형제이며 친구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에게 탁월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또는 그 이상을 이미 다 겪으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스스로 고통의 밑바닥 그 극한에까지 체험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신 것은 물론이요, 아버지이신 하느님으로부터도 완전히 버림받으신 고통을 예리한 칼에 찔리듯 체험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시며 처절히 외치셨습니다.

이렇게 고독 속에 버림받으셨던 주님은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고통, 임종자의 임종의 고통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깊이 동참하고 계십니다. 바로 임종자의 고통과 고통 속에 그와 하나가 되어 계십니다.

호스피스에 임하는 이가 이 사실을 스스로 깊이 깨닫는다면 참으로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임종하는 이가 주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셨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녀님, 저의 이 오랜 고통스러운 병상생활을 지켜보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 참으로 고맙습니다.**

님이 지극한 자비와 사랑으로 임종자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줄 수 있다면, 그리 하여 임종하는 이가 그 주님의 손에 자기 영혼을 내맡길 수 있게 돕는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호스피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호스피스 경험은 없지만 임종을 돕는 마음으로 임종자로 하여금 하느님은 자비 지극하신 분이시고 임종자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을 그의 귀에다 거듭거듭 들려주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렇게 해 본 일이 몇 번 있습니다.

또한 임종자가 마음의 상처를 다 씻고 갈 수 있도록, 누구에게 용서할 일이 있으면 다 용서하도록, 또 용서를 청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원하는 것도 아주 필요하고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깊이 믿음으로써 임종자가 십자가 상에서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시며 숨을 거두신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자비의 손에 자신을 내맡기며 임종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호스피스일 것이라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어떤 호스피스 수녀님의 체험 하나 들은 것을 전하겠습니다. 오랜 냉담 끝에 신앙을 잃은 한 여인이 말기 환자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별 수없이 죽는 운명에 놓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호스피

스 수녀님의 도움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녀님은 비록 짧게나마 매일같이 그녀를 방문하였습니다. 어떤 날은 말도 한 번 붙여보지 못하고 미소만 남기고 돌아서야 했다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수주일, 이제는 수녀님도 거의 포기하고 싶은 심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여인이 수녀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녀님은 가게되었고, 그녀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가 냉담하게 된 이야기, 마음에 입은 반교회적 상처, 하느님께 대한 저항감 등 이야기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애를 충고백 하다가서 이야기하고는 “수녀님, 이제 제 마음이 해방된 것처럼 후련하군요. 저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셨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녀님, 저의 이 오랜 고통스러운 병상생활을 지켜보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 참으로 고맙습니다. 수녀님의 친절한 방문을 고개 돌려 거절하였던 것 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데도 저를 꾸준히 찾아주신 것, 바로 그 때문에 저는 저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하느님을 찾고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스피스의 열매입니다. 호스피스, 얼마나 큰 사랑의 봉사입니까? 그런 봉사를 하시는 여러분에게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